

정유업계, 1분기 실적 '好'… 올 업황반등 원년 기대

에쓰오일 1분기 영업의 '흑자전환'
매출 5조3448억, 영업의 6292억

현대오일뱅크 전 사업부문서 흑자
매출 4조5365억… 전년비 2.7% ↑

정유업계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냈지만, 올해가 업황 반등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잇따라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정유 4사 가운데 가장 먼저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에쓰오일은 5년 만에 본기 영업이익 기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매출 5조 3448억원, 영업이익 629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조 1984억원에서 2.8% 늘고, 영업이익은 -1조73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영업이익은 2016년 2분기 6408억원



에쓰오일 울산시 울주군 소재 잔사유 고도화 시설(RUC) 전경.

이후 5년 만에 최고 실적이다.

현대오일뱅크도 전사업부문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현대오일뱅크는 올해 1분기 기준 매출 4조5365억원, 영업이익 412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매출 4조4166억원, 영업이익 -5632억원에서 각각 약 2.7% 늘고,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카본블랙 부문서만 영업이익을 냈던 지난해와 달리, 올 1분기에는 ▲정유

2113억원 ▲석유화학 872억원 ▲운활 기유 1030억원 ▲카본블랙 150억원 등 전체적으로 고른 실적을 냈다.

정유업계가 업황의 회복을 기다리는 대신 생존을 위해 고부가가치 신사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에쓰오일은 신규 석유화학 복합시설 RUC(잔사유고도화시설)와 ODC(올레핀 하류시설)의 가동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2018년 말 상업 운전을 시작한 RU

C와 ODC는 초창기 운전 과정에서 파악한 개선점과 운영 경험을 반영해 지난해 3분기 대규모 정기보수를 완료한 이후 줄곧 최대 가동률을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 2단계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새롭게 추진하는 '샤힌 프로젝트'는 석유화학 비중을 생산 물량 기준 현재 12%에서 25% 수준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에쓰오일은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연료전지, 리사이클링 등 신사업 분야로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롯데케미칼과 합작사 현대케미칼을 통해 중질유 석유화학 분해시설(HPC)의 올해 11월 상업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HPC는 납사, 중질유분 T-DAO, 부생가스를 원료로 폴리에틸렌 연산 85만 톤 및 폴리프로필렌 연산 50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현대오일뱅크는 HPC 상업 가동 후 태양광 모듈 등 수익성이 높은 친환경

화학 및 소재 다운스트림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실제 정유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경제마진은 여전히 적자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복합 경제마진은 지난해 2월 둘째 주(4.0달러) 이후 통상 손익분기점(BEP)으로 여겨지는 4~5달러를 넘은 적이 없다.

다만 최근 경제마진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월 다섯 째주 경제마진은 배럴당 3.2달러를 기록하며 약 13개월 만에 3달러를 넘어섰다.

한편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도 올해 1분기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배터리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감압잔사유 탈황 설비(VRDS)를 구축해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갔다. GS 칼텍스는 올레핀 복합분해설비(MFC)를 연내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한국타이어, 영업의 1860억… 75.5% 증가

1분기 매출 1.6조… 12.6% 늘어
교체용·고인치 타이어 판매 ↑

한국타이어앤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올해 1분기 제품판매 호조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성장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완성차 감산과 관세비용 등 각종 악재속에도 고성능 모델 인기 등으로 수익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8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5%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매출액은 1조 616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6% 늘었다. 특히 18인치 이상 고인치 승용차 타이어 판매 비중이 약 38%로 전년 대비 4%p 상승하며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영향이 일부 완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럽, 북미, 중국 등 주요 지역에서 교체용 타이어 판매 증가와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 및 미국 시장의 수요 회복 추세로 전년동기 대비 교체용 타이어 판매가 증가했다. 특히 중국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교체용 타이어 판매 증가와 완성차 수요 회복을 통한 신차용 타이어 판매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도 40%로 13%p 오르며 계속적인 질적 성장을 보였다.

한국타이어는 2021년에도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들과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지속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최근 포르쉐 고성능

스포츠 로드스터 '718 박스터(718 Boxster)'에 초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S1 evo3(Ventus S1 evo3)'를 공급하며 최고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 했다.

또 지난해 포르쉐 최초 순수 전기차 '타이칸' 공급에 이은 중국 전기차 기업 닉오의 핵심 모델 'ES6'와 'EC6' 신차용 타이어 공급으로 전기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 공장(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은 원자재 가격과 해상운임의 가파른 상승, 선복 부족, 일부 지역 OE 공급 물량 감소, 통상임금 보상 합의 등이 반영되어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약 5% 하락, 영업이익은 적자전환 되어 향후 한국 공장의 매출과 수익성 회복이 중요한 과제이다.

/양성운 기자 ysw@

볼보트럭코리아, 신형 라인업 사전예약

8년간 개발비 1.3조 4종 출시앞둬

국내 수입 중·대형 트럭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볼보트럭코리아가 8년 만에 선보이는 신형 FH16, FH, FM, FMX 라인업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3일부터 사전계약에 돌입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볼보트럭 신형 라인업은 2013년부터 8년간의 기간동안 개발비만 약 1조 30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2020년 유럽 시장 출시를 시작으로 다른 차원의 안전과 품질 혁신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2만 3000대 이상의 사전 주문을 받으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볼보의 핵심 가치인 안전과 환경은 물론 운전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신형 라인업에는 50여 가지가 넘는 운전자를 위한 안전사양과 첨단기술이 대거 탑재되었다.

안전 사양으로는 국내 상용 브랜드로는 최초로 보조석 사각지대 카메라와 풀 세이프티 패키지가 전 차종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운전자는 물론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까지 고려했다. 또 전방 및 마주 오는 차량의 눈부심 피해를 방지해 주는 볼보트럭의 능동적 안전 시스템인 '어댑티브 하이빔'이 적용된다.

운전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넓어진 전면 유리 적용으로 운전자 가시성이 약 10% 향상되었음은 물론 12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전 차종에 기본으로 장착되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출시되어 혁신을 일으켰던 볼보 다이내믹 스티어링(VDS)이 운전자 및 운행 조건별 개인 설정이 가능한 형태로 또 한 번 진화했다.

/양성운 기자

포스트코로나 훈풍… 국산차, 해외서 잘 나간다

현대車 지난달 수출 185% 급증
기아車 해외 판매량 121% 늘어
르노삼성 수출량 3878대 87% ↑
한국지엠 총 2.1만대 수출 1.6만대
쌍용車 악재 속 4381대 판매 성공

로는 전년보다 29.7%나 많았다.

기아자동차는 4월 글로벌에서 24만 9734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78%나 높은 실적을 냈다.

마찬가지로 해외 판매량이 19만 860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0.9% 성장, 국내 판매량은 5만 1128대로 1.5% 늘었다.

르노삼성자동차도 모처럼 수출이 성장세를 냈다. 전체 판매량이 9344대로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 국내 판매가 5466대로 4% 줄어든 반면 수출량은 3878대로 전년 동기 대비 87.2%나 많아졌다. 전달(2877대)보다도 34.8% 신장했다.

한국지엠은 전체 2만 1455대, 수출은 1만 5985대였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5.4%, 27.5% 줄어든 수치지만, 최근 반도체 수급 불균형 등 악재만 해결한다면 추후 전망도 긍정적이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협력사 납품거부와 반도체 공급 차질, 법정관리 등 악재 속에서도 4381대 판매에 성공했다. 당초 계획보다는 절반에 머물렀지만,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 누적 계약 대수만 5000여대를 기록하는 등 혁신 불씨를 살렸다.

/김재웅 기자 juk@

국산차가 빠르게 수출을 늘리고 있다. 반도체 수급 불균형 등 악재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는데 성공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국내외 판매량이 34만 5777대로 3일 밝혔다. 전년 동기(16만 7693대) 대비 106.2%나 성장한 수치다.

해외 판매량이 성장을 주도했다. 국내 판매는 7만 219대로 전년(7만 1042대)보다 1.2% 줄어든 반면, 해외 판매량은 27만 5558대로 185.1%나 성장했다. 전달보다는 9.5% 줄긴 했지만, 4월까지 누적으

로 실제로 트레일 블레이저가 최근 미국 현지 소형 SUV 판매량 중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달 2020대를 판매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각국 정부가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국산차 업계에서도 경쟁력 높은 신차를 출시하면서 현지 소비자들을 공략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수급 불균형 등 악재만 해결한다면 추후 전망도 긍정적이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협력사 납품거부와 반도체 공급 차질, 법정관리 등 악재 속에서도 4381대 판매에 성공했다. 당초 계획보다는 절반에 머물렀지만,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 누적 계약 대수만 5000여대를 기록하는 등 혁신 불씨를 살렸다.



쌍용차 더 뉴 렉스턴 스포츠 칸 정측면(위)과 르노삼성 XM3 유럽수출 차량 선적 모습.